

## 원충성질환, 열대성질환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

이번 세미나는 말라리아, 이질아메바, 람블 편모충 등에 대한 최신 정보의 소개와 다양한 토의가 있었으며, *Pneumocystis carinii*, *Cryptosporidium* 등에 대한 소개와 연구결과의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 용 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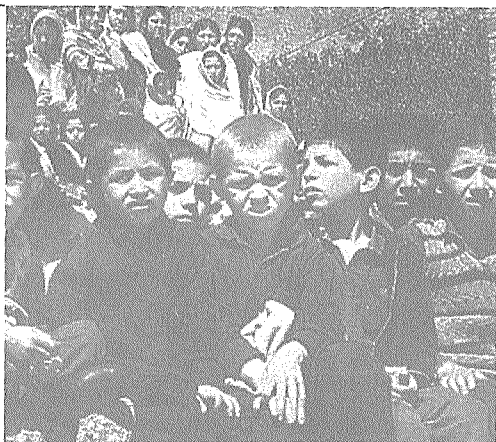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가 주최하여 매년 국제적인 학술행사로 열리고 있는 열대의학 세미나가 보사부 및 대한의학협회 후원으로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개최되었다. 이번으로 18차가 되는 이 세미나는 매년 그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여 열대의학 방면의 국내외를 막론한 연구업적과 최신의 지견들이 발표되어 그동안 이 방면의 국제적인 정보교환과 이해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올해

는 “최근 중시되고 있는 원충성 질환 (Currently Important Protozoan Diseases)”을 중심으로한 연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남아, 미국 및 유럽에서 온 각국의 연자들의 다양한 발표 내용과 활발한 토의로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 행사는 이 근태 열대의학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 세희 연세대학교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이해원 보사부 장관, 문 태준 대한의학협회장과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한 상태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부처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 행사에 이은 오전시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온 연사들

에 의하여 각기 그 나라의 원충성 질환의 최근 감염상황, 역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말라리아를 위시한 다양한 종류의 기생원충들이 인류의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후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감염성 질환이라고도 생각되는 말라리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다년간 세계보건기구에서 말라리아 전문가로 일한 바 있는 백 영한 박사는 동아시아 및 대양주에서의 말라리아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중요한 풍토병 중의 하나였던 말라리아가 이제는 완전히 퇴치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가 여러가지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그 밖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말라리아의 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으며 말라리아 치료의 큰 문제점으로 알려진 약제내성 말라리아의 치료에 대하여 Lasserre 박사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말라리아의 관리대책에 관한 패널토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 한일교수 등의 곤충학자들에 의



▲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말라리아를 위시한 다양한 기생원충들이 인류의 건강에 큰문제가 되고있다.

해 매개곤충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가 제시되었고, 화학적 치료 방법, 보건교육,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예방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각 방면의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이튿날 오전은 수인성 원충성 질환이 주제가 되었다. 캐나다

Toronto 대학의 교수인 양용진박사는 최근 새로이 인체에 치명적인 뇌수막염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Naegleria* 및 *Acanthamoeba* 종류 등의 자유생활아메바(Free-Living amoebae)에 의한 북미에서의 인체 감염에 및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의 감염현황 그리고 새로이 설사의 원인체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Cryptosporidium*이라는 원충의 감염현황, 역학, 병원성, 전파 및 진단 등에 대하여 최근에 연구되어 알려진 매우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람블편모충증에 대하여는 이 근태교수, 자유생활아메바에 대하여는 임 경일교수, 이질아메바증에 관하여는 소 진탁교수가 최근 수 년 동안의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새로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알려

저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Pneumocystis carinii에 의한 인체 감염이 국내 병원의 신생아실 등에서 발생하였다는 국립의료원 소아과 전문의사 안 돈희 선생의 보고와 함께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의 발표는 매우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질환의 예방이 각 병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북미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나 말기암환자, 면역 억제 상태의 환자들이 이 원충에 의한 폐염에 대한 최신

리아, 이질아메바, 램블편모충 등의 과거로부터 크게 문제시되었던 기생원충에 대한 최신 정보의 소개와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자유생활아메바, Pneumocystis carinii, Cryptosporidium 등 새로이 그 병원성이나 생물학적인 성격이 알려진 원충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 결과의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진 세미나였다.

또한 다가오는 88 올림픽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교류 등을 고려하여



다가오는 88올림픽과 계속 증가하는 국제교류 등을 고려할때, 열대성질환 감염, 유입의 예방이 필요하다.

의 생물학적, 면역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도 새로왔다. 아울러 인수공통감염증으로 알려진 톡소플라즈마증에 대한 국내의 역학, 약제 실험 등의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다.

두번째 패널토의로는 수인성질환과 설사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충, 세균, 비루스성질환 및 수자원 위생 등에 관하여 의사 및 각 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한 매우 광범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 18차 열대의학 세미나는 말라

볼 때 이러한 원충성 질환을 비롯한 열대성질환의 유입이나 감염 위협으로부터 예방, 기초적인 연구 업적의 교류, 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한번의 뜻 깊은 기회였다.

(필자 : 연세대학교 열대의학 연구소 연구원)